

문화단신

대한민국종교예술제 (9월 21일~10월 14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7개 종교 화합의 장인 제9회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9월 21일 미술제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9월 21~26일 갤러리 라레에서 열린 미술제에 이어 음악제는 10월 14일 KBS 홀에서, 영화제는 10월 5~9일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열린다.

원음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시작할 음악제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성직자 4명으로 구성된 성직자 중창단 등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영화제에서는 '초승달과 밤배'를 개막작으로 6작품이 상영된다. 무료로 관

서윤석 선생 서예전 (9월 29일~10월 5일)



통연(通衍) 서윤석 선생의 환갑기념 서예전 '반야의 향기'가 9월 29일~10월 5일 인사동 백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12개의 만다라, 석가여래행족속 병풍, 2m에 달하는 석가여래성도기 병풍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회에 맞춰 발간된 <반야의 향기>는 반야만다라, 석가여래성도기, 모법연화경, 석가여래행족속, 찬불송, 금강경 오가해, 육조단경 등 300여점을 담았다. (02)2214-6757

'도불유희' 공연 (9월 29일~10월 1일)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 출생에서부터 전법선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김옥련 교수(경성대 무용과)의 춤과 소리꾼의 창, 사물패 등으로 되살아난다.

2006 APEC 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개최 기원 문화축전행사 참가작 '도불유희'가 9월 29일~10월 1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도불유희'는 무용과 음악 사극의 양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051)628-0338

학문·업적 총체적 조명

나카무라 하지메 7주기 추모, 제자 20명 '진리의 수첩' 출간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선생(1912~1999·사진) 서거 7주기(10월 10일)를 기려 9월말 출간될 <진리의 수첩-총특집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 집필에 한국인 오진(梧眞) 스님(동방학원 강사)이 필자로 참여해 화제다. 불교 및 인도사상 연구에 평생을 바치며 단행본 100여권과 논문 3000여 편을 남긴 나카무라 선생은 세계불교학계의 대표적인 석학이다. 특히 비교사상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한일 불교학 교류에도 앞장서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오진 스님이 집필에 참여하는 <진리의 수첩>은 나카무라 선생의 사상을 조명한 '인물사전'이다. 불교를 잘 모르는 이들도 선생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카무라 선생이 창립한 동방연구회와 제자들이 주축이 돼 기획했다. 이 책의 집필에는 나카무라 선생의 수제자인 마에다 센카쿠(前田尊學) 등경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제자 20명이 참여했다.

<진리의 수첩>은 '원시불교' '인도대승불교' '비교사상' '공(空) 사상' '동아시아 불교' 등 15개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의 관점에서 나카무라 선생의 학문적인 업적을 조망하고 있다. 집필자의 면면도 화려하다. 오쿠다 세이메이(奥田清明) 前 시텐노지국제대총장이 '자이나교'를, 다카미타 이시우(田上太秀) 前 고마자와대 부총장이 '인도대승불교'를 맡았으며, 가라시마노보루(幸島房) 도쿄대 교수가 '인도고대사'를 다뤘다.

1977년 일본 유학시절 나카무라 선생을 만나 논문 지도를 받는 등 20여 년간 나카무라 선생과 인연을 맺어왔던 오진 스님은 '지금 다시 새로운 동양인의 사유방법에 담긴 예지'라

는 논문에서 <동양인의 사유방법>이라는 저술의 가치를 밝혔다. <동양인의 사유방법>은 나카무라 선생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된 책.

오진 스님이 특히 관심을 가진 대목은 나카무라 선생의 한국불교관 및 그와 관련된 업적이다. 오진 스님에 따르면 나카무라 선생은 대다수 일본인 불교학자들과 달리 일찍이 한국의 불교사상에 관심을 가졌으며, 중국·인도 문화와 아울러 한국불교가 일본문화 전통 형성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또 선생은 한일 양국의 불교가 융성하게 되면 암흑 속에 있는 현대문명에 새로운 광명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오진 스님은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선생의 인식은 퇴임 후 창립한 도쿄 동방학원에 일본 연대학총장이 선정됐다. 기무라씨는 화일학 전공자로 동아시아 불교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 오진 스님도 집필 '나카무라 학술상' 시상

<구조윤리강좌>는 <동양의 윤리> <삶의 길의 윤리> <생명의 윤리> 등 3권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생명의 윤리>는 생명과 자연, 계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불교생태철학적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15회를 맞은 나카무라 학술상 수상자로는 기무라 기요타카 국제불교대학 연대학총장이 선정됐다. 기무라씨는 화일학 전공자로 동아시아 불교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nia.com

'11조 가사' 눈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9월 30일~10월 23일)

11조 가사, 사리보함, 옷칠 공예 연꽃,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초대작가전 '유혹(Temptation)에 대한 120개의 정의'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다.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리는 국제초대작가전에는 스펀드글라스 작가 주디스 스즈키, 섬유예술가 손정례 등 국내외 초대작가 120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 볼만한 불교 작품은 전통염색가 김경열 대표(명주실염색공방)의 '11조 가사'. 이 작품은 갑사 명주 직물을 전통기법으로 천연염색한 뒤 손바느질로 한뼉 한뼉 정성스레 지었다. 특히 전통 염색 과정은 철저히 전통을 고수한 홍화염색기법을 사용했다.

홍화꽃을 물에 불려 황색소를 제거하고 콩나나 찰벼집 깻물로 홍색소만을 추출해 오미자나 매실 우려낸 물에 증화 발색시켰다. 이런 까탈스러운 과정 때문에 홍화염색은 조선시대 가사나 임금의 흉포 등에도 사용됐다.



전통 홍화 염색 기법으로 제작된 11조 가사.

복발형 보주 사리함을 선보인 김영창 소장(전통누금공예연구회)은 같은사지에서 출토된 사리함 내부의 황금제 사리내함을 침단기법(전통누금)을 통해 그대로 재현했다.

나무에 다쳐 쓴 옷칠해 엮음을 그린 권정순의 '연(Lotus)'도 주목할 만하다. 권씨는 "연을 유연하게 그린 이유는 비바람이나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운 속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김세준의 '향로'는 전혀 향로 같지 않을 정도로 금속공예의 날카로움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섬세함으로 빛어났다. (043)277-2501 강지연 기자 jyang@buddhan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6>

탐진치와 신경물질

가끔 산사에서 들리는 독경 소리는 세속의 여러 소리들에 묻든 우리의 귀를 잊어준다. 특히 천수경에서 '원아속단탐진치(願我速斷貪嗔癡)'라는 구절을 들으면 평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탐진치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

세속의 생활을 하면서 탐하지 않고 성(捰)내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부처님 법을 무시하고 세상에 집착(執)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삶이 더 잘 먹고, 많이 모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지향하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문

반응 물질을 만들어서 필요한 세포(피부나 손·발의 세포)로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물질이 신경전달물질이다. 운동·흥분·감정조절과 관련한 도파민(dopamine)이나 우울증·식욕·수면과 관련 있는 세로토닌 등이 모두 신경전달 물질이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세포핵 내에 있는 DNA와 주위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뱀을 보았을 때, 무서움이 생기는 것 또한 신경 전달물질에 의한 것이므로, 감정이라는 것 또한 수억년 걸린 나의 DNA의 진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분에 의해서 뱀과 쉽게 친해지는 것 또한 태어난 후 훈련에

재산 모으기·부동산 투기 등...

오래된 유희과정서 만들어진 습의 결과

제가 되고 있는 종교계의 재산 모으기, 부동산 투기 등의 소식을 접하면 승속을 막론하고 탐·진·치를 끊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느낌은 신경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안·이·비·설·신·의의 여섯 가지 감각체계는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자극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신경 세포의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으로 빛이 들어왔다고 하자. 이 빛에 의해서 눈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은 전기신호로 만들어지고, 신경 세포의 고리들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된다. 뇌의 신경 세포들은 전달된 정보를 뇌세포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세포를 자극해서 반응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내보내기도 한다. 뱀을 보았을 때, 신경 자극에 의해서 뇌 신경세포는 뱀에 의한

이해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DNA의 묘한 조화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밝히고 이것이 정신적인 질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 치료를 위한 약을 개발하는 것이 신경과학자, 그리고 생물 화학자들의 연구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탐·진·치가 오랜 나의 유희의 결과임과 동시에 나의 인생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습관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오묘하기 짝이 없는 것은 자비가 총명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유 없이 탐·진·치가 나를 괴롭힐 때, 이것이 나의 오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하자. 그리고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관조함에 의해서 오랜 업이 사라진다는 오묘한 부처님



그림 : 문병성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EPS발브를 설치하게 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대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발브는 이리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일러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더운 날 난방비에 비해 추운 집 (인방은 덥고 할대니 방은 추운 집)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전국시찰,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개음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도공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화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신(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국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수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眼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장 우미산 황새굴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정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채로와 토산물이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힐터이며, 수양원으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음식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항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물 나무약사여래물 나무약사여래물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기초교리집 과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교리

- 법요집
 - 상권의
 - 전방행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빙가
 - 법문
 - 경교
 - 사용서원
 - 신화가
 - 기타장불가
- 기초교리
 - 1. 불교란?
 - 2. 부처란?
 -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 5. 사찰경내 예법
 - 6. 화장과 반배
 - 7. 고두래
 - 8. 예불문
 - 9. 삼보
 - 10. 삼귀의
 - 11. 삼보인
 - 12. 심입
 - 13. 삼학
 - 14. 신도오교15. 사설제
 - 16. 사설법
 - 17. 십이인연
 - 18. 육바라밀
 - 19. 팔정도
 - 20. 보살삼매론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저크지 (시은품은 선착순 100명만 배정 드립니다.)

과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원전도서-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중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